

《8.1》건군절 80돌기념 기획도서

이 땅에 피 뿌린 겨레 장병들

항일편

리광인 림선옥



민족출판사

**이 땅에 죄 뿌린
겨레 장병들**

항 일 편

리광인 림선옥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八一军旗下的朝鲜族官兵. 抗日篇: 朝鲜文/李光仁,
林善玉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 7

ISBN 978-7-105-08444-9

I. 八… II. ①李…②林… III. ①中国人民解放军-朝
鲜族-军人-生平事迹-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中国人民解放军-朝鲜族-军人-生平事迹-1937~
1945-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K825. 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14554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8月第1版 2007年8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7.25

字数: 468千字 定价: 36.00元

ISBN 978-7-105-08444-9 /K· 886(朝49)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 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8월 제1판 2007년 8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17.25

자수: 468천자 값: 36.00원

ISBN 978-7-105-08444-9 /K· 886(조 49)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추천의 글

연변대학출신의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연변대학출신 제자들이 적지 않다. 조문학부 1978년급 학생 리광인씨도 그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리광인씨는 올해 《7.7》사변 70돐을 앞두고 《조선족력사 문학연구문집》 1~2집을 펴내더니 올해 《8.1》건군절 80돐에 즈음해서는 또 민족출판사에 의해 《이 땅에 피뿌린 겨레 장병들(항일편)》을 펴내게 되었다. 20여년전 스승으로서의 나는 제자 리광인씨의 알찬 역사연구성과에 또 한번 축하를 보낸다.

돌이켜보면 나와 제자 리광인씨의 사제인연은 20여년전 연변대학 시절이라지만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인연으로 맥맥히 흐르기는 2005년 7월이후부터이다. 그새 인연에 힘입어 리광인씨는 2006년 9월부터 절강 월수외국어대학에 초빙되어 한국어담당교수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연은 남달리 깊어만 가고있다.

내가 제자 리광인씨에게 탄복함은 그의 끈질긴 역사탐구정신과 학구정신이다. 여느 선생들과 달리 리광인씨는 매일, 매주 해당 강의를 마치고도 한시도 한가할 때가 없다. 그는 남방땅에는 고대 겨레 발자취가 꼭 깔렸다면서 시간만 있으면 틈나는대로 미지의 역사 처녀지 답사에 나서곤 하는데 역사답사 주체가 절강과 남방일대 고대 겨레 발자취로 또렷이 나타난다. 이같이 지긋은 끈질긴 노력으

로 리광인씨는 국내 조선족연구일군으로서 첫 사람으로 소흥과 그 일대는 물론 항주, 천대산, 녕파, 주산군도 보타산, 상해, 광주 등지를 주름잡으며 《항주 고려사와 고려 명승 의천연구》, 《고대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과 국적문제》, 《남방백성들속에서의 지장보살의 지위와 형상문제》, 《로신과 조선민족연구》 등 연구과제 답사를 훌륭히 해내었다. 또 남방기행, 산행기들을 거래와의 관계속에서 꾸준히 써내어 인터넷에 발표하면서 제나름의 계열기행문집을 준비하고있어 돋보이기만 한다.

정말이지 절강 월수외국어대학 교수로 뛰기까지 근 1년간 제자리광인씨는 출근시간외 순 여가시간으로 자기 돈을 팔면서 많고많은 일들을 해내었다. 그중의 주요한 일 하나가 올해 민족출판사의 중점도서인 《이 땅에 피뿌린 거래 장병들(항일편)》이다. 이 책의 집필과 출판을 위해 리광인씨는 여가시간을 최대한도로 쪼개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뿐만아니라 안해 되는 연변대학 1977년급 중문학부출신 림선옥씨는 남편의 유력한 조력자로 등장한다. 결혼 25년 생활속에서나, 병가로 휴식차 남방 절강으로 온 몇달사이에도 남편을 도와 집필로부터 타자, 편집, 수정, 교정에 이르기까지 손을 대지 않은데가 없다. 남편의 일이 거래를 위한 일이라며 온 심신을 쏟아붓는 림선옥씨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 책의 항일관련 글들은 계획중에 있는 《이야기 조선족항일투쟁사》의 구성부분이다. 리광인씨는 《인물 조선족항일투쟁사》(전 4권)와 더불어 《이야기 조선족항일투쟁사》(전 4권)의 집필과 편집을 이미 끝내었는데 민족출판사에서 수요하자 해당연구 글들을 사심없이 그대로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땅에 피 뿌린 거래 장병들(항일편)》(45만자)은 동북 항일무장투쟁과 관내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리광인씨의 조선족항일무장투쟁사연구 결정체로서 적지 않은 글들은 처음 발표하게 된다. 이에 들인 품은 얼마였으련만 이 책을 읽노라면 사람들은 여직 모르

고있던 조선족항일무장투쟁의 허다한 구석구석을 헤아리게 될것이고 공화국 대지에 휘날리는 진붉은 오성붉은기와 《8.1》군기에도 우리 조선족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다는것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될것이며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손에 결연히 총을 잡고 싸운 조선족선렬들에게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품게 될것이다.

새로운 근무지에 할일이 많다며 삶의 무대를 잠시 남방 절강으로 옮긴 리광인씨, 스승으로서의 나는 제자의 조선족사 연구성과와 현실태도에 다시다시 탄복하면서 이후의 조선족사연구에서 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제자 리광인씨의 새 책에 전하는 스승의 마음이자 희망이며 바람이다.

절강성 월수외국어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소장

류은중(교수, 박사)

2007년 6월 28일

차 례

제1부 유격대편

개산툰유격대	2
라자구유격대	8
연화유격대(1)	14
연화유격대(2)	19
달라자유격대	22
해란구유격대	28
유격투쟁의 나날에	31
근거지 진출을 앞두고	35
방상범과 4개 구 유격대	42
《연길작탄》	47
어랑촌 13용사	50
연길현유격대	62
왕청현유격대	69
마록구에서 녹아난 위만군수송대	72
왕청현위 군사부장	74
별동대 대장	80

《우리 량대장》	87
훈춘현위 제1임군사부장	90
훈춘현유격대	92
대황구 13렬사	96
근거지 병기공장	98
달라자에서의 유격활동	104
집단부락정책에 맞서	110
대대로 발전하기까지	115
장승환대대장	120
유격대의 꽃	123
후방부대의 위훈담	129
화룡탄의 첫 탄장	137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	140
《우리 할머니》	144
두 소녀와 우복동전투	148
피로 물든 붉은넥타이	153
전투로 이어진 1934년	158
소왕청방어전투	166
적의 배후를 뚫고	170
통일전선의 개가	174
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후	181
인민혁명군과 라자구공격전	188
사도하자참변의 통쾌한 복수전	192
로야령너머 첫 포성	198
액목땅에서	202

제2부 항일련군편

꼬마 홍광	208
리부평과 제1군 제1사	216
리민환과 소년영	223
북만땅의 소년기병대	227
항일련군 제3군에 참가	230
제4군의 조선족전사들	235
내두산보위전	239
김산호와 전영림의 우정	241
무송땅에서	245
주현이와 장백선발대	250
제6사 부대에 참가하다	253
되돌려를 넘은후	258
장백땅에 올린 첫 총성	262
사령부의 소년련	265
백두의 불사조	268
주동적으로 출격	276
원정의 길	280
북만땅에 쓰러진 련장	284
신금은 제5사 녀전사였다	288
항일련군 부녀탄의 녀전사	293
제5군의 후방밀영에서	298
간삼봉전투	303
동에 번쩍 서에 번쩍	306
제4사 밀영의 조난	311
밀림속의 오락회	316

전례없는 대작전	322
양사령원이 이끄는 소년철혈대	327
꼬마항일영웅들	330
항일련군의 녀재봉대원들	335
《적기가》의 비장한 노래소리	344
남패자에서의 회사	347
적들의 추격과 포위속에서	351
울기강전투	355
흥기하전투	359
륙과송, 자신즈 전투	364
두도류하회의후	368
제1로군 사령부 부관	372
동북항일련군 제1군 참모장 리홍광	379
중공남만특위서기 리동광	388
강물에 몸을 던진 여덟 자매	395
북만항일련군의 장령들(1)	400
북만항일련군의 장령들(2)	406

제3부 관내편

운남강무학교	412
황포군관학교	417
북벌전쟁에서의 조선민족 용사들	421
남창봉기에도 우리 겨레가	429
광주봉기에서 피를 흘리다	432
중조인민혈의정	441
주은래와 양림의 우정	443
홍군의 첫 포소리	447

4 이 땅에 피 뿌린 겨레 장병들(항일편)

중앙혁명근거지에서	449
장정길에서의 양립과 무정	453
서안사변에 참가한 조선민족	459
조선의용대와 무한보위전	464
국민당 항일전장에서	469
팔로군에서 싸우다	474
신사군과 조선인동지들	484
관내 항일무장대오내에서	493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503
화북렬사릉원에 모셔진 주문빈렬사	511
혁명의 성지 연안에서	518
등소평과 조선인투사들	532

제 1 부

유적개천

개산툰유격대

1930년 《5.30》폭동이후 중공동만특별지부에서는 만주성위의 지시에 좇아 적의 총을 빼앗아 자기를 무장하며 무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해 6월에 화룡현 개산툰 학성에서 장자관을 책임자로 하는 개산툰유격대가 선참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우리 당이 령도하는 연변에서의 첫 유격대조직인데 인원은 약 20명이였다.

신생한 개산툰유격대는 첫 활동을 무기탈취에 두고 샘이구팡(웃천평)의 한 지주집에 가서 권총 1자루를 탈취하였다. 그후 유격대는 학성과 후동을 중심으로 2개 대로 나뉘어 활동하였는데 개산툰 후동사람 김락영(렬사)은 후동일대의 1개 대에 소속되어 지방무기탈취와 경제모금활동을 벌리였다.

1930년 5월 27일, 화룡현 약수동에서 동북에서의 첫 인민정권—약수동쏘베트가 창설되였다. 그뒤를 이어 쏘베트운동이 화룡현 각지에서 드세게 일어났다. 동만특별지부에서는 갓 조직된 중공개산툰구위와 개구유격대에 회경가공안국을 습격하고 무장을 탈취하며 그곳에 쏘베트정권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이해 7월 28일, 개구유격대 2개 대와 수백명 군중들은 구위의 지시를 받고 학성에 집결하였다. 제1임구위서기이며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장자관은 회경가공안국 20여명 순경중 17명이 개산툰에 갔

는데 이날 저녁 돌아오지 않기에 행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하였다.
현데 비밀이 새였다. 유격대의 행동계획을 탐지한 회경가공안 국에서는 밤도와 길을 다그쳐 회경가부근의 강가에 미리 매복하였다. 이날 밤, 개구유격대와 혁명군중들이 장자관의 지휘하에 회경가 부근의 강가에 이르렀을 때 공안국놈들의 돌연적습격을 받았다. 우리측은 수명의 부상자와 희생자를 낸채 부득불 후퇴하여야 했다.

1930년 8월초에 개구유격대는 평강구유격대와 함께 연화유격 대에 망라되어 《8.1》길돈폭동을 성원하러 가다가 평강구의 장인강 산너머 도목구 상촌에서 우세한 동북군소속 룡군대의 포위에 들어 큰 손실을 입었다. 김락영 등 유격대원들은 개구로 돌아오는수밖에 없었다.

1930년 8월 13일, 평강구 약수동에서 중공연화중심현위가 탄생하였다. 현위 군사부에서는 인차 개산툰을 중심으로 현직속유격 대를 조직하였다. 그때 유격대 대장은 조동철이고 대원에 김락영, 채규진, 강운만, 강희문, 최대홍, 최동철, 박동필 등이었다.

이해 가을에 화룡현 각지에서는 현위의 지시에 따라 군중적추 수폭동과 주구청산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현직속유격대는 현내 각지로 다니며 투쟁의 성과를 지켜싸웠으며 무기탈취투쟁과 군자금 모집운동을 널리 벌리었다.

1930년 가을이후 지방에서의 유격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직속유격대는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이해 겨울에 현위군사부에서는 직속유격대를 해산하고 지방유격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산툰구위에서는 인차 김락영을 대장으로 하고 채규진 등 5~6명을 대원으로 하는 개산툰유격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1931년 봄, 중공동만특위 군위서기 양림(조선족)이 집필한 《동만유격대사업요강》이 각지에 시달되었다. 요강에는 유격대사업의 방향과 건군원칙, 정치사업, 투쟁책략 등이 명확히 밝혀져있었다. 《요강》이 개산툰에도 시달되자 개산툰유격대활동은 자못 활기

를 띠었다. 그러나 상급당조직에서 이 시기 유격대를 《립삼로선의 산물》이라고 해산령을 내렸기에 개산툰구 등 여러 유격대들은 기본적으로 해산당하지 않으면 침체상태에 빠지었다.

1931년 가을, 동만각지에서는 군중적추수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해의 추수폭동과는 달리 중국 지방정부의 법령을 내세운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김락영, 채규진 등 유격대의 골간들은 이 투쟁의 주력으로 나섰다. 이듬해 봄에 이르러 군중적투쟁은 춘향투쟁으로 번져갔다.

1932년초, 혁명세력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각지에 설치한 경찰서와 경찰분주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압제할수 없음을 감지한 적들은 조선에서 대량의 병력을 끌어들이어 공산당《토벌》을 일삼는 한편 무장자위단을 조직하여 《토벌》에 리용하였다.

이해 5월초순에 일제수비대는 살기등등하게 자동골안에 달려들어 이 골안치기 채수령밑의 알미대마을 5~6세대와 골안어구의 사립정동소학교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자동 상촌의 채수막집 김일천과 후저골(자동 6대)에서 내려오는 최금석의 형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는 일제가 개산툰일대에서 대거 감행한 《토벌》의 전주곡이었다.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투쟁시기였다.

1932년초에 원 개구유격대 대장 김락영이 중공개산툰구위 군사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동만특위와 현위군사부의 지시에 따라 개산툰유격대를 재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현위군사부장 방상범(렬사)이 직접 개산툰에 와서 유격대설립을 지도하였다.

투쟁가운데서 개구유격대는 장총대와 권총대로 나뉘었다. 유격대골간 채규진은 선뜻 권총대에 들어 원쑤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강직한 아버지를 닮은데가 있어 성격이 칼칼하고 말을 시원시원하고 칼베듯 하여 동지들로부터 《면도칼》이라고 불리웠다. 그의 앞에서 일제주구들인 학성의 최씨부자, 리경수의 녀편네 등 7명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무기탈취투쟁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전형적사실은 전설이다싶이 전해지고있는 《베감투》이야기이다. 베감투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김락영과 최수만, 리동일 등 유격대의 쟁쟁한 골간들이다.

1932년 음력 5월 20일(양력 6월 23일), 난데없는 길다란 장례행렬이 부산을 피우며 개산툰 선구의 공안분주소 프락에 들어섰다. 말짱 상복을 입고 베감투를 쓴 20여명의 행렬인데 나이 지긋한 리동일이 상주로 나서고 그옆에는 권총을 품에 지른 김락영과 최수만이 바짝 따랐다.

장례행렬의 선두에 나선 리동일과 김락영, 최수만은 수속청구를 구실로 분주소 소장한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들은 상주 리동일을 앞에 내세우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 하는 소리와 함께 시꺼먼 권총을 소장의 가슴팍에 들이댔다. 후날 리동일의 회억에 따르면 그때 분주소에 놀러왔던 한 일본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손쓰려다가 김락영과 최수만에 의해 그 자리에 빠드러지고말았다고 한다.

시퍼런 대낮에 개구유격대는 대담한 행동을 취하여 일거에 보충 8자루와 권총 1자루를 탈취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것은 해당 자료로 보는 무기수자이다. 헌데 이날의 《상주》인 리동일은 권총만 해도 4자루를 탈취했다고 했다. 《베감투》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락영과 최수만, 리동일이다. 허나 오래동안 이 이야기는 리동일과 그가 거느린 지방적위대와 소선대원들이 한 거사라고만 알려졌다.

김락영, 리동일, 최수만 등 《장례행렬》은 이날 큰 전과를 올리고 유유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를 전후하여 적들은 개산툰일대 도처에서 총을 빼앗겼다고 아우성을 쳤다.

개구유격대를 선두로 하여 군중적무기탈취투쟁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1931년 추수투쟁후 소선대화룡현위 주요간부 박파는 온 정력을 무기탈취에 몰부었다. 그는 먼저 개구소선대조직을 도와 다음과